Shopping p/13

더운 한가위 내복특수 실종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Sports p/21

박지성 이번엔 최악의 평점

전국 35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

NEWS p/02

일본산 수산물 믿을곳이 없다

NEWS p/03

카라 日 인기 못말려!

ENTERTAINMENT p/26

YEZAC
www.woosunginc.com
ccm
예작은 국내외 최고급 원단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크레용팝 미ABC방송 출연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제2904호 www.metroseoul.co.kr

SK 삼성 꺾고 4연승

본격적인 채용시즌 공채달력 들어지라 IMF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채용절벽기 도래가 예측된 가운데 2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13 인크루트 하반기 채용설명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주요 기업들의 9월 채용 계획을 살피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한푼이 어디…보험도 온라인 대세

고객은 보험료 아끼고 회사는 비용 줄이고··한화생명 등 대형사 줄줄이 가세

직장인 이규진씨(35)는 최근 10년짜리 정기보험을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가입했다. 빠듯한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설계사가 파는 상품은 매월 1만9300원이지만 온라인전용 상품은 1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10년간 50만원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 판매 채널이 변화하는 모양새다. 중소형사 위주의 온라인 보험시장에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온라인 보험시장은 점포 운영비, 설계사 수수료 등 각종 사업비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이 온라인 보험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온라인에 친숙한 20~30대의 젊은 고객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향후 주요 고객층이 될 젊은 고객들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생보사 '빅3' 가운데 한화생명이 온라인 보험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해약 환급률이 높은 온라인 전용보험 5종을 내놨다.

한화생명 온라인 보험 브랜드는 '온슈어'다. 한화생명은 정기보험·연금보험·저축성보험·상해보험·어린이연금보험 등 5종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한화생명 온슈어 e정기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 보험료가 15%가량 저렴하고, 온슈어 e연금보험은 1년 내 환급률을 90%가량으로 책정했다.

교보생명도 온라인보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가칭)을 오는 10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다. 삼성생명 역시 10~11월께 사업부 형태로 온라인 보험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대형 생보사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대형 생보사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로 기업 간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 관점에서 20~30대 일찍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판매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 측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금 팔리는 온라인 전용상품은 비교적 설명이 쉬운 저축성 보험 위주라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생명보험 상품은 통상 보장 기간이 긴 데다 일부 복합상품의 경우 특약이 30여 개에 달해 복잡하다"며 "보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재가입할 때 보험료 비교도 직접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회사 이름 믿고 샀는데…

유명 식품회사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농심, 농협한삼인 등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제품은 일반 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 62건이다.

또 암·당뇨·변비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는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감귤리오케미(농심)', '항암효과'를 표방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등 유명 업체의 식품도 여럿 포함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 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도 49건(17%) 적발됐다.

매체별 허위·과대광고는 인터넷(215건, 73%), 신문(67건, 23%), 인쇄물(6건, 2%), 기타(6건, 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한 123건에 대한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 과대광고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jy@

日수산물 '패닉'

후쿠시마 원전 반대쪽 5개현 수산물서도 세슘 검출

원전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히메현·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 등 남서부 5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일본 에히메 10건, 구마모토·가고시마 각 2건, 나가사키·시마네 각 1건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남서쪽으로 1000여㎞ 떨어진 지역이다. 해류가 일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지역이라 방사능 오염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다.

김 의원은 일본 남서부 지역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된 원인으로 양식어장의 사료를 꼽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인근 도쿄나 시즈오카 등지에서 잡힌 까나리 등 어류는 양식어장용 사료 원료로 쓰였고 이 사료가 일본 전역으로 유통되면서 방사능에 노출됐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더욱 투명하게 방사능 오염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야 하고 식약처는 정확한 내용을 확보해 국민에 알려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2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직원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선 20개 조정

3215번 등 내달 26일부터

서울시는 다음달 26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20개를 조정·운영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4일 '2013년 상반기 정기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 같이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이 불편했던 일부 구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거리·중복 및 승객 과소 노선 정리 등 목표에 맞춰 진행됐다.

이에 따라 노선 가운데 차고지가 있어 버스를 갈아타야했던 3215번(면목동~면목동)은 2230번(중랑차고지~경동시장)과 차고지를 맞바꿔 승객의 불편을 줄였다.

시에서 최장거리를 운행했던 672번(1회 운행거리 71㎞·방화동~이대후문)은 가좌역 공영환승센터에서 이대 후문 구간만 운행하도록 노선을 단축했다.

상세 내용은 서울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us.seoul.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손동완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철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USA

metro Chile

국경일 연날리기 사고 예방 캠페인

칠레 독립기념일(9월 18일)을 앞두고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연날리기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대 국경일인 이날 칠레 전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연날리기 행사가 진행되는데 종종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끌어당길 때 순간적으로 팽팽해진 실이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 아이들의 살이 찢어지거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산티아고시 관계자는 "즐거운 축제날 끔찍한 사고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metro Mexico

허리케인 휩쓴 주택가 악어떼 공포

멕시코 동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이 악어떼를 불러와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초강력 허리케인 '페르난도'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인 탐피코를 휩쓸고 지나갔다. 주 정부는 이로 인한 홍수와 폭우로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허리케인은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강가에 살던 악어들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떠밀려 주택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탐피코 지역에 서식하는 모렐레티 악어가 강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웃통 벗는데 웬 남녀차별

여성평등의 날 맞아 미·캐나다 35곳서 '고 토플리스 데이'·여성 수천명 가슴 노출 활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고 토플리스 데이'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노출은 성적이지 않다'는 문구가 쓰여진 포스터를 들고 있다.

"남성은 거리에서 웃통을 벗어도 되는 데 여성은 왜 안되는 겁니까?"

25일(현지시간) '상반신을 드러내자(Go Topless)'는 타이틀을 내걸고 거리 시위를 벌이는 '고 토플리스 데이(Go Topless Day)'를 맞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민들이 '남녀 평등 달의'를 외쳤다.

고 토플리스 데이는 여성도 남성처럼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가슴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취지로 매년 '여성평등의 날'(8월 26일)과 가까운 일요일에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 시위대는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거나 가짜 젖꼭지 혹은 테이프로 가린 채 행진한다. 이를 지지하는 남성들 역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거나 젖꼭지를 가리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캐나다 35개 주요 도시에서도 수천명의 여성 시위자들이 상반신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했다.

보스턴 거리 행진에 참가한 스테이시 슈네(28)는 여성의 상반신 노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위해 이번 시위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슈네는 "남성들은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데 왜 여성만 허용되지 않느냐"며 "이는 엄연한 남녀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원한 바람을 가슴으로 느끼는 기분은 정말 환상적이다. 윗옷을 입었을 때보다 온도가 3~4도는 시원한 것 같다"며 "여성들이 이런 기분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가자인 켈리(22)는 "가슴을 드러낸 채 거리를 지나다 몇몇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면서 "똑같은 몸인데 남성과 달리 여성의 상반신 누드만 이상하게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여성의 가슴 노출 문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일부 여성들은 "여성도 상반신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며 '당당한 노출'을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성들에게 성적인 자극만 준다"며 '상반신 노출 평등권'을 거부한다.

한편 고 토플리스 데이는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종교 단체가 주관한다. 이 단체는 외계인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전직 스포츠 담당 기자 클로드 보리롱 라엘이 1975년 스위스에서 창설했다.

/보스턴 메트로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etro Russia

노래 가르치는 식빵 할아버지 제자는 비둘기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 '비둘기 음악선생님'으로 불리는 노인이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몇 해 전 정년 퇴직한 음악교사 아르투르 아브라만(77). 그는 "요즘 비둘기 제자들 가르치는 맛에 푹 빠졌다"며 활짝 웃었다.

아브라만이 공원에 들어서자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어찌 알았는지 그의 주변으로 동시에 몰려든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해 온 모이를 나눠주며 비둘기들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아브라만은 "수년 전부터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비둘기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올 정도로 친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에게 '착한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비둘기들 역시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 새들과 소통하는 일이 즐겁다"고 덧붙였다.

아브라만은 공원 곳곳에 흩어져있는 비둘기들을 위해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 모이를 나눠준다. 그는 "가끔 비둘기들에게 식빵 부스러기를 줄 때가 있는데 웬일인지 흰 빵은 잘 먹지 않는다"며 "그래서 잡곡 곡물이나 호밀로 만든 흑빵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공원을 찾는 일부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공원 내 벤치를 배설물로 더럽히고 있다"며 "모이를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한다. 이에 아브라만은 자식 같은 비둘기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벤치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다.

/모스크바 메트로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초경량 고어팩라이트로 몸이 가볍다

고어텍스가 가벼워진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마음까지 가볍다

B타이거고어자켓

블랙야크 40주년 특별가 190,000

2013 가을/겨울 신제품 구매고객께 Water Bottle을 선물로 드립니다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1907.54 (+23.09)	520.97 (+2.93)
금리	환율
2.91 (-0.03)	1111.50 (-4.50)

매매가 8주째 하락…전셋값 53주째 상승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8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전셋값은 0.1% 상승해 5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매매가격의 경우 서울 수도권(-0.03%)은 지난 주보다 내림 폭이 둔화됐으나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0.00%)은 보합세로 전환됐다. 이에 반해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수도권(0.30%)은 53주, 지방(0.08%)은 54주 연속 오름세를 탔다. 서울(0.30%)은 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강북(0.21%)은 전주 보다 오름 폭이 둔화됐다. 강남권(0.38%)은 여전히 상승세가 뚜렷했다.

/김현정기자

건설주 '활짝'…증권가 "일단 합격점"

8·28 전월세 대책 영향은

"부동산 시장 단기간 회복 어렵다" 한목소리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건설사 미분양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엇따라 합격점을 줬다. 정책발 훈풍에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내 건설주들의 주가가 들썩였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주 상당수가 강세를 보였다. GS건설(1.32%), 일성건설(2.67%), 동양건설(0.47%) 등이 일제히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입자 지원 늘리기 등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주의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으로 크게 저평가된 상태이므로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정책이었다"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 해소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간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정책 완화 의지에도 불구, 앞서 나온 4·1 대책의 실행법안 대부분도 국회에서 여전히 보류 중이기 때문이다.

서보익 연구원은 "아직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크고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호재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모기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은 (결국) 집주인의 손실비용을 정부와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될지 100%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사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려면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성장 동력은 주택 시장보다는 외국에서 수주하는 공사의 이윤이 될 것"이라며 "2분기를 바닥으로 외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중선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각 가계의 주택 구매여력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린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난제인 가계부채를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정기자 hkuki1@

내 얼굴보다 훨씬 큰 무등산 수박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직원들과 한 어린이 모델이 전라도 광주 지역 특산품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의 2~3배 크기에 무게가 20Kg이 넘는 대형 수박으로 껍질에 줄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수박은 내년 소량만 출하되며 가격은 한 통(27kg)에 35만원이다. /연합뉴스

우리카드 사장에 강원 선임

● 우리카드 사장에 강원(사진) 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에 김병효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사모운용 사장에는 박종규 전 우리자산운용 사장이 최종 후보로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해 이사회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애초 대추위가 정부에 인사검증을 의뢰할 때 2순위로 올랐던 인물이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인사에서 1순위로 올랐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2순위 후보들이 선임되는 뒤집기가 벌어졌다. /김현정기자

펀드수 세계2위…자산 1%

● 한국의 펀드 수 비중이 전 세계의 12.4%로 세계 2위이지만 순자산 규모는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펀드 수는 9193개로 전 세계 주요국 펀드 수의 12.4%를 차지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12.8%)다. 반면 한국의 펀드 순자산은 1분기 현재 전 세계의 약 1.0%에 불과했다. 소규모 유행성 펀드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현정기자

상속인 금융거래 개선

●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대상 금융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은행 등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대부업계 채무, 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늘릴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정기자

"네이버 팔지말고 들고가라"

분할상장 첫날 희비…빠른 성장 중장기 보유 추천

NHN이 29일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나뉜 뒤 첫 거래를 재개했다. 분할상장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지 한달 만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게임분야를 맡은 NHN엔터는 장 초반부터 하한가를 쳤다. 시초가(14만9500원)에서 14.72% 하락한 12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기존 포털사업을 이어받은 네이버는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다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 시초가(46만원)에서 4.35% 오른 48만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당초 증권사들은 네이버와 NHN엔터의 적정주가 수준으로 각각 35만~56만4000원, 14만~16만원선을 제시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두 종목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는 거래 첫날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네이버와 NHN엔터의 주가는 향후에도 엇갈린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네이버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실적 기대감이 탄탄한 반면, NHN엔터는 게임업종의 경쟁 심화와 규제 리스크 등이 부담 요인이다.

김 연구원은 "네이버는 라인의 7월 매출이 47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네이버는 매수한 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40만원 이상으로 오르면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NHN엔터에 대해서는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10만원 초반까지 급락하게 되면 저평가 매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고위공무원 '세금 폭탄'

직급보조비 과세

정부가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고위 공무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비용으로 간주해 오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오는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밝혔다.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수당도 높다.

총급여 1000만원을 받는 2급 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780만원에 대한 과세로 추가 부담이 187만원 늘어나는 등 이번 세제개편으로 모두 28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9&1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빨라지는 재벌들의 자산 대물림

총수 있는 43개 그룹 조사· 주식 승계율 30%

대기업 총수들이 자산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기업경영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자녀에 대한 주식 자산 승계율이 평균 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그룹이 9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웅진 96.7%, LS 94.5% 순으로 중견그룹의 자산 승계율이 높았다.

자산승계율은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경영권을 가진 총수와 배우자, 직계 자녀가 보유한 가족 전체 자산 대비 자녀 소유 자산 비율을 뜻한다.

롯데는 5대 그룹 중 자산승계율이 유일하게 90%를 넘었다. 91세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총 주식자산이 2722억원이었지만 차남 신동빈 회장은 거의 전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해 자산이 2조235억원에 달했다. 두산도 박용곤 명예회장의 자산은 420억원인데 반해 장남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부부(2095억원), 차남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부부(1395억원), 장녀 박혜원 두산매거진 전무(702억원) 등 자녀의 자산이 14명예회장보다 많았다.

자산승계율이 50%를 넘어 실질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뤄진 그룹도 있다. 한솔(79.2%), 효성(71.9%), 영풍(65.4%), 동부(62.1%), 한국타이어(56.2%) 등 5개사다.

반면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산승계율은 각각 22.8%, 34.1%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부부가 총 12조4262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자녀의 자산은 총 3조6727억원이었다. SK와 현대중공업 등은 자산승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업 오너와 자녀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우 자산 승계가 더디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효경기자 un nus@metroseoul.co.kr

재활 돕는 로봇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복지&헬스케어 전시회 센덱스(SENDEX) 2013 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재활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LTE 쓰는 교환렌즈 카메라 '갤럭시 NX' 삼성전자가 29일 서울 서초사옥 딜라이트에서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가졌다. 모델들이 세계 최초로 롱텀에볼루션(LTE) 통신과 안드로이드 OS 젤리빈이 탑재된 프리미엄 미러리스 교환렌즈 카메라 '갤럭시 NX'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한화투자증권 고객돈 수억원 횡령사고 발생

● 한화투자증권에서 직원이 고객돈 수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올해 3~4월 고객 돈 2억5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고객이 맡긴 증권카드 등을 이용해 돈을 몰래 빼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통보되는 잔액통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고객들이 회사에 항의했고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김선지기자

은행들 서민층 대출 가산금리 차별 더 커져

●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고객의 가산금리는 대폭 낮춘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가산금리는 쥐꼬리 내리거나 오히려 올렸다.

1~3등급보다 7~10등급에 대한 가산금리를 더 많이 내린 곳은 우리·하나·외환은행 정도에 불과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층에 가산금리 부담을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권기자

전달 경상수지 67억달러 '+'…18개월째 흑자

● 경상수지가 18개월째 흑자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67억1000만 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72억4000만 달러에 비해 작지만 지난해 같은달의 61억4000만 달러보다는 큰 규모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인 530억 달러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정기자

대기업 내부거래 줄었지만…

2009년 이후 처음·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평가 일러"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지정 기준 민간 대기업 집단 49곳의 내부거래를 집계한 결과, 비중은 12.3%, 금액은 1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은 2009년 첫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STX(27.49%), SK(22.51%), 현대차(21.33%), 포스코(20.59%), 웅진(18.76%)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집단은 한국투자금융(0.46%), 교보생명보험(1.09%), KT&G(1.47%), 대우건설(2.34%), 현대(2.48%) 등이었다.

금액순으로 보면 SK(35조2000억원), 현대차(35조원), 삼성(28조2000억원), 포스코(15조5000억원), LG(15조3000억원) 등이다. 이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 합계는 129조2000억원으로 전체 49개 기업집단 내부거래액(185조3000억원)의 69.7%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으로 전년보다 10.09%포인트 증가했고 웅진(4.92%포인트), 부영(4.57%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7조1000억원)의 내부거래액 감소분이 가장 컸고 KT(-1조원), STX(-0.8조원)가 뒤를 이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체 내부거래비중은 감소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국헌기자 kmk@

7월 KT만 가입자 감소

단독 영업정지의 영향을 받은 KT만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집계한 결과 KT가 1640만9358명으로 전월보다 2만9830명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7월 말 기준 가입자가 2714만7375명으로 전월 대비 7705명 늘었고, LG유플러스는 1068만7259으로 같은 기간 6만62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KT 가입자 상당수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T가 상반기 이동전화 시장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월 30일부터 8월5일까지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국헌기자

채용 양극화 심해진다

신입사원 구인 규모 지난해보다 대기업 4.8%P↑ 중소기업 2.1%P↓

2009년 금융위기(IMF)이후 최대급가 는 채용빙하기가 노래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중견·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700여개 상장사 가운데 777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36.6%만이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채용시장이 위축된 2009년 하반기(35.4%)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다는 대답은 대기업(50%), 중견기업(37.8%), 중소기업(32.5%)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대기업(18.9%), 중견기업(31.9%), 중소기업(52.8%) 등의 순이다.

채용규모에서는 대기업의 감소율이 10%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감소율이 각각 30.9%, 23% 등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에서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4.8% 포인트 증가한 60.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각각 2.7%, 2.1% 포인트 감소한 13.1%, 26.1%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심화될 것이란 이야기다.

12개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만 지난해 하반기보다 채용을 소폭(1.5%) 늘리고, 나머지 11개 업종은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2.3%↓)·정보통신(2.4%↓)·자동차(4.8%↓)·금융(9.4%↓)은 일자리 수 감소폭을 보였다. 유통·물류(14.9%↓)·제약(17.1%↓)·식음료(23.4%↓)·기계철강조선중공업(23.8%↓)·제조(31.5%↓) 순으로 감소폭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의 경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80.7%나 감소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최근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졸채용, 시간제일자리,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라며 "기업 위기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기업 내부에서도 채용 계획 수립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계단까지 꽉 찬 채용설명회 2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13 인크루트 하반기 채용설명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빈 자리가 없어 계단에 앉아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입사시험 문제집만 63종

판매가도 가장 비싸

삼성그룹 입사시험 문제집이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국내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인적성 검사 대비 문제집(2013년도 출간)을 비교한 결과, 삼성의 입사시험 문제집 종류가 63종으로 가장 많고 판매가격도 평균 2만124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점 3.0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류전형의 장벽이 낮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LG그룹이 22종 입사시험 문제집 평균 1만795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는 22종(1만7860원), SK 17종(1만7110원), 두산 16종(1만5800원), 롯데 10종(1만8600원), GS 6종(1만6330원), 한화 6종(1만5620원), 현대중공업 5종(1만638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각 그룹이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를 실제로 풀어보면 비슷한 유형이 많이 발견되지만 개별 기업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른 만큼 그룹 맞춤형 문제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건설업체 수 6년만에 줄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탓

4대강 사업 종료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로 건설업계 수가 6년 만에 감소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2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공사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는 6만5251개로 2011년보다 218개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감소는 통계상 2006년(-11.7%) 이후 6년 만이다. 2006년을 제외하면 통계상 건설업 감소는 1987년(-0.1%) 이래 25년만이다.

발주자별로는 국내 부문이 18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90억원(0.4%)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 3조8640억원 증가했지만 공공부문에서 3조649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4대강 사업 예산이 2011년까지 매년 3조원 가량 투입되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와 함께 종료돼 이같은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은희기자 unlimue@

프리미엄 해치백 탑재 '시트로엥 DS3 카브리오' 한불모터스가 29일 서울 청담동 시트로엥 강남전시장에서 새로 출시한 시트로엥 DS3 카브리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차는 프랑스 프리미엄 해치백 DS3에 전동식 캔버스톱을 적용한 오픈형 모델로 가격은 3500만원대다. /연합뉴스

지난달 설립 법인 최대

지난달 설립된 법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은 7월 신설법인 수가 714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27개보다 0.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설법인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년 동월보다 각각 5.1%, 4.5% 증가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2.0%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30세 미만이 신설된 법인이 전년 동월보다 각각 4.0%, 2.5% 늘었다. /이국명기자

"'김치롤' 파워 보여줄 것"

LoL 세계대회 '롤드컵' 국가대표 나진 소드 "팀플 중요… 똘똘 뭉쳐 우승견인"

국내 최초 롤드컵 우승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역할 수행 게임(RPG)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세계 대회인 '롤드컵' 국내 대표로 나진 소드(사진)가 최근 선발됐다. 롤드컵은 게임 약자 '롤(LoL)'에 축구 대회 '월드컵'을 합친 말이다.

올해 2회째인 롤드컵은 다음달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3팀이 나가며 나진 소드 외 나머지 두팀은 다음달 7일 최종 결정된다.

나진 소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롤드컵 결선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나진 소드는 지난해 8강전에서 대만 대표팀 TPA에 패해 안타깝게도 탈락됐다. 당시 TPA는 롤드컵 초대 우승까지 차지했으나 올해는 대만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다.

이번 결선에는 북미와 유럽, 우리나라에서 각 3개팀, 중국 2팀, 대만 및 동남아시아 2팀, 그리고 남미와 러시아 등 총 14개팀이 참여한다.

아직 전세계 롤드컵 진출 팀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나진 소드의 강력한 적수는 북미 유럽팀으로 알려졌다.

나진 소드 선수들은 "지난해 아쉽게 떨어져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면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왔으니 이번 롤드컵 우승컵은 한국팀 최초로 나진 소드가 들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리그오브레전드 실력은 해외에서 김치를 어라 불릴 정도로 정평이 났다. 이 게임의 우리나라 PC방 점유율은 40%를 넘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만팀에 이어 올해에도 동아시아에서 롤드컵을 가져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태다.

나진소드를 이끄는 박정석(31) 감독은 "뚜렷한 목표 의식과 단단한 팀워크로 롤드컵을 들어올리겠다"면서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인만큼 단단한 신뢰와 시너지 효과로 우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희기자 [illegible]

웅장한 무협게임의 진수

'용쟁호투' 온라인 서비스

무협게임 '용쟁호투'가 정식 출시됐다.

서비스 제공사 ㈜네티보는 역할 수행 게임(RPG) 용쟁호투 온라인을 2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게임트릭스는 이 게임을 '이번달 마지막 주 주목할만한 신규 게임'에 선정하기도 했다.

용쟁호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한 무협 게임으로 각 레벨에 맞는 사용자들끼리 연합해 전쟁을 치르는 줄거리로 구성됐다.

특히 이 게임은 오행(五行) 요소를 가미해 무료 운세 풀이, 이용자 사주에 맞는 캐릭터 추천 서비스 등으로 독특한 재미도 선사한다.

네티보는 용쟁호투 출시를 기념하는 '용호상박' 와신상담' 이벤트를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dragon.ipopcor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티보 관계자는 "미소공의 대표작 '정우관'이 국내 재개봉되는 날인 29일에 맞춰 용쟁호투를 출시하게 됐다"면서 "무협게임의 웅장함과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정승희기자

달콤·새콤…스베드카의 황홀한 변신

스웨덴 프리미엄 보드카 스베드카 칵테일 레시피

롯데주류가 지난 4월 출시한 보드카 '스베드카' 3종을 활용한 '맛있는 칵테일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보드카 시장의 성장과 저도주를 선호하는 20~30대 여성을 고려해 스베드카를 활용한 다양한 보드카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는 것.

스웨덴어로 "스웨덴의 보드카"란 뜻을 가진 스베드카는 스웨덴에서 생산된 밀을 기존 보드카에 비해 1.5배 가량 많은 5회 증류해 부드럽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과일향 함량도 다른 제품보다 4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많은 프리미엄 보드카다.

750㎖ 용량의 스베드카는 알코올도수 40도의 '스베드카 보드카'와 35도인 '스베드카 시트론(레몬향)', '스베드카 클레멘타인(오렌지향)' 의 3종이 있다.

롯데주류가 제안하는 보드카 칵테일로는 '네잎 클로버', '딸기 카이피로스카', '시트러스 데 마요' 등이 있다. 다음은 맛있는 칵테일 레시피. /박지원기자

◆네잎 클로버 달콤·새콤·쌉싸래한 맛의 모히또와 비슷하다.

재료: 스베드카 보드카, 신선한 라임즙 혹은 라임 주스, 달콤한 시럽, 비터스(Bitters), 굵은 설탕, 민트잎 몇 장

-만드는 법

①신선한 민트잎을 몇 장 찢어 잔 아래 쪽에 넣는다.

②스베드카 보드카, 라임주스, 시럽을 4:3:3의 비율로 넣는다.

③잘게 부순 얼음을 넣고 긴 숟가락을 이용해 잘 섞어준다.

④잔의 둘레에 비터스(Bitters)를 약간 바르고 굵은 설탕을 빙 둘러 묻힌다.

⑤여분의 민트잎으로 잔의 윗 부분을 장식한다.

◆딸기 카이피로스카 보드카와 라임즙, 소다수의 탄산의 청량감에 딸기와 어우러져 상큼한 맛을 낸다.

재료: 스베드카 보드카, 달콤한 시럽, 라임 4조각, 소다수(스파클링 워터·사이다도 가능), 딸기 여러 개

-만드는 법

①스베드카 보드카와 시럽은 4:3의 비율로 잘 섞는다.

②라임은 즙을 내어 넣어준다.

③딸기를 으깨어 넣은 뒤 잘 섞어준다.

④취향에 맞게 소다수를 부어준 후, 딸기로 마무리 장식을 하면 완성.

◆시트러스 데 마요 약간 달익는 자두수스 향이 강하며, 끝맛은 쌉싸래하다.

재료: 스베드카 시트론, 오렌지향리큐어트리플섹, 자두로 만든 리큐어슬로진, 라임즙 혹은 라임주스, 시럽, 장식용 할라피뇨

-만드는 법

①스베드카 시트론과 두 가지 리큐어를 3:1:1의 비율로 셰이커에 넣고 흔들어준다.

②잔에 얼음을 넣고 잘 섞어준 음료를 따른다.

③라임즙을 넣은 후, 할라피뇨를 얇게 썰어 장식해준다.

보드카로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은 스베드카 페이스북(www.facebook.com/svedkakorea)과 블로그(blog.naver.com/svedka)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슬레 캡슐 커피머신 '네스카페 미니미' 출시

한국 네슬레(네스카페)가 캡슐 커피머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미니미'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으로는 고압력 기술로 추출한 최상의 블랙 화이트 커피는 물론 네스퀵·네스티 피자 등의 음료도 즐길 수 있다.

한국 네슬레는 미니미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6일부터 3일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돌체구스토 팝업 카페를 연다.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www.dolce-gusto.co.kr)에서도 다양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음달 8일까지 서포터즈를 선발, 미니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캡슐 버라이어티 팩을 증정한다. 다음달 말까지는 SNS 채널을 통해 미니미 온칩 이벤트를 소문내면 미니미 경품, 기프티콘 등 추첨 당첨의 행운도 제공한다.

하겐다즈 팝업스토어 성황

한국하겐다즈는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진행한 '더하우스 오브 하겐다즈 팝업스토어'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팝업스토어에는 1만명 이상이 방문해 최고급 디저트 아이스크림 '시크릿 센세이션'을 체험했다. 이밖에 포토존 기념 촬영, 네일 아트 서비스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전통 디저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신제품 '시크릿 센세이션'은 초코렛 퐁당과 크렘 블레 두 가지 맛이 있다.

Seoul & Berlin
GOING
UNDERGROUND
제4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SeoulMetro International
Subway Film Festival
2013.9.16-30
SMIFF

여름 여자의 손 왜 이리 푸석해

끈적임 없는 핸드크림·자외선 차단제로 관리해야

가을 입은 크로커다일레이디
배우 하지원이 여성 캐주얼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스타일 화보를 통해 가을 여신으로 변신했다. 크로커다일레이디의 가을 컬렉션은 톤 다운된 블루·카키 그린 컬러로 트렌디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여름철 가장 홀대받는 곳은 손이다. 평소보다 손을 자주 씻으면서 끈적인다는 이유로 핸드크림을 챙겨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강렬한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돼 겨울보다 건조해지기 쉽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더운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가벼운 제형의 핸드크림을 사용하고, 이왕이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뉴트로지나의 '노르웨이전 포뮬러 패스트 업소빙 핸드크림'은 뛰어난 보습력으로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한다. 특히 산뜻한 사용감으로 끈적임 없이 스며든다. 비타 로즈비타 뷰티 크림 핸드 & 네일은 수분 공급에 탁월한 로즈 잼 보틀 쉬터가 함유돼 촉촉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가꿔준다. 은은한 장미향도 오래가 여성들에게 인기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손도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UV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뉴트로지나의 '에브리데이 핸드크림 프로텍팅 SPF25'은 바르는 즉시 UV 차단 보습막을 만들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준다. 에뛰드하우스의 '핸드부케 리치비타민 핸드크림SPF15/PA+'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결은 개선해 손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심하게 건조할 때 SOS 팁

여름철 물놀이 이후 손이 극심한 건조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땐 겨울에 사용하던 고보습 핸드크림을 충분히 바른 후 비닐장갑을 끼고 15분 정도 흡수시키면 어느 정도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후에는 여름용 핸드크림을 자주 덧발라 보습을 유지해줘야 한다.

/서지현기자 ssw@metroseoul.co.kr

바바라 팔빈 빈폴 입는다

타라 페리와 광고 모델

제일모직의 캐주얼 브랜드 빈폴은 유명 모델인 바바라 팔빈과 타라 페리를 가을·겨울 시즌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바라 팔빈은 제2의 미란다 커로 불리며 빅토리아 시크릿과 샤넬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타라 페리는 음악가 겸 모델로 랑방과 버버리 등의 모델로 활동했다.

빈폴 측은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를 모델로 선정해 새롭고 품격있는 클래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빈폴 측은 바바라 팔빈과 타라 페리의 2013년 가을 광고를 통해 이번 시즌 새로운 트렌치코트와 가방을 선보였다. 바바라 팔빈은 빈폴 레이디스와 액세서리의 모델로, 타라 페리는 빈폴 맨의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illegible]기자

작지만 특별한 하우스웨딩 어때?

팔래스호텔 하우스웨딩페어

서울팔래스호텔이 29일 '2013 하우스웨딩페어'를 개최했다.

서울팔래스호텔의 1층 로얄볼룸과 12층의 스카이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팔래스호텔만의 차별화된 웨딩 데커레이션 등 최신 웨딩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또한 서울팔래스호텔만의 특별한 퓨전한식코스요리를 스파클링 막걸리와 함께 시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2부에서는 성악 듀엣 등의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명품인생 만들기' 강의로 잘 알려진 송진구 교수를 초청, 명품 가정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했다.

성자영 서울팔래스호텔 연회판촉 팀장은 "특색 있는 웨딩홀 데커레이션과 전문 웨딩 디렉터의 1대1 맞춤 상담 등을 통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하우스웨딩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186-6869

/글·사진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더샘, '글로벌 에코 플래그숍' 명동 사보이점

● 화장품 브랜드숍 더샘이 새롭게 바뀐 브랜드 콘셉트 '글로벌 에코'와 BI를 적용한 플래그숍 '명동 사보이점'을 공개했다.

이번 플래그숍은 브랜드 컬러인 글로벌 에코 레드와 나무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동선과 시선에 맞춰 제품을 배치했다. 더샘은 명동 사보이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매장에 '글로벌 에코'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080)080-7500

'스킨푸드 네일 칵테일 바' CGV영등포에 운영

● 스킨푸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 CGV영등포에서 네일 팝업스토어 '스킨푸드 네일 칵테일 바'를 운영한다.

당일 영화티켓을 소지한 관람객 중 부스를 찾아와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면 무료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일 200명씩 선착순 마감한다. 또한 네일 칵테일 바에서 자물쇠의 4자리 비밀번호를 맞추면 '네일 시크릿 박스'를 증정한다.

'더(THE) 놀부보쌈' 1호점 놀부보쌈이 26년 만의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더(THE)놀부보쌈' 종로타워 직영 1호점을 오픈했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서 열린 '더(THE)놀부보쌈' 브랜드 론칭 기념 행사에서 모델들이 더(THE)놀부보쌈의 대표 메뉴인 가마솥 보쌈을 선보이고 있다. 더(THE)놀부보쌈은 세련된 매장 분위기와 다양한 메뉴,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존 보쌈 전문점과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턱뼈 괴사증 진단기준 마련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선종 교수팀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 관련 턱뼈 괴사증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턱뼈 괴사증이란 골다공증 및 암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들이 치아 발치, 임플란트 치료를 할 경우 골 노출이 생긴 후 치유가 안 되고 턱뼈가 괴사되는 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김선종(사진) 교수와 김진우 전임의는 그동안 이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골대사인자들을 비교한 결과 종합적인 골대사인자의 분석을 통해 위험환자군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만들었다. /[illegible]기자

더운 추석 내복이 운다

속옷업체들 특수 사실상 포기 실용적인 양말 세트로 승부수 외출복 겸용 이지웨어도 기대

예년보다 열흘가량 빠른 추석에 날씨까지 겹치면서 대표적인 한가위 선물인 '내복'이 외면을 받고 있다. 속옷업계 한 관계자는 "내복을 선물하기에는 아직 날씨가 더운데다 경기불황으로 양말·이지웨어 같은 저렴하고 실용적인 선물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은 올해 추석 가을·겨울 상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쌍방울 관계자는 "불경기인 요즘 1만원대 저가 상품이 추석 선물용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아 인기"라고 말했다.

BYC 역시 올 추석에는 고객들이 내복보다 양말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다음달 4일까지 양말과 수납함을 묶은 '양말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중소협력업체와 손잡고 3만여 세트를 준비했다. 판매 가격은 여성용 세트(8켤레)가 1만2000원, 남성용 세트(8켤레)가 1만5000원이다. 롯데마트 측은 "시중가보다 25% 저렴한 수준"이라며 "함께 얹어주는 수납함은 양말 11켤레를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칸이 나눠져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용적인 이지웨어도 인기

남영비비안은 실내복으로, 혹은 가까운 거리로 외출할 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지웨어' 판매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에는 추석 선물로 파자마를 많이 찾았지만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이지웨어가 파자마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이지웨어는 티셔츠와 바지 등 단품으로도 판매하고 디자인이 세련돼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남영비비안 관계자는 "아직 날씨가 덥고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 추석에 내복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좀 더 추워져야 내복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zzak@metroseoul.co.kr

인천 송도에 유럽형 테마 쇼핑몰 문연다

NC큐브 커낼워크점 개장

이랜드가 신사동 가로수길과 홍대의 개성 있는 카페와 다양한 콘셉트의 상점·거리 공연을 한데 모은 테마 쇼핑몰을 선보인다.

이랜드리테일은 30일 인천 송도에 유럽형 테마 쇼핑몰 'NC 큐브 커낼워크점'을 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면적 5만4726㎡ 규모의 커낼워크 점에는 800m 길이의 인공 수로를 중심으로 상가가 배치됐다. 상가에는 미쏘·스파오·슈펜 등 이랜드의 SPA 브랜드, 나이키·아디다스스포츠·리복 등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편집숍 등 90개 매장이 들어선다.

50여 개의 식당·카페와 휴게 공간도 마련되며 주말에는 뮤지컬 갈라와 밴드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열린다.

커낼워크 점은 개장을 기념해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머그잔 등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11번가에선 다이소 더 싸요

내달 1일까지 할인판매

오픈마켓 11번가는 다이소 제품을 온·오프라인 최초로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까지 세탁바구니·정리함·우산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최대 13% 저렴하게 판다.

다이소가 11번가에 직접 입점해 단일 브랜드 최초로 5000여 개 상품을 내놓는다. 다이소는 전체상품 중 절반 이상이 1000원 균일가 생활용품점이다. 일본 다이소 산업과는 별개인 순수 한국 기업으로 정리·수납, 인테리어, 문구용품 등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한다.

11번가는 다이소의 입점을 기념해 '시스템박스 2단 서랍장(2850원)', '옷걸이 4개세트(900원)', '정리바구니(900원)' 등 오프라인 인기상품을 11% 저렴하게 내놨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한다.

/박지원기자

CJ올리브영·GS왓슨 '반값할인'

CJ올리브영과 GS왓슨 등 드러그스토어들이 '반값 할인'에 나선다.

CJ올리브영은 다음달 4일까지 'CJ올리브영 세일'을 실시하고 화장품과 헤어·보디용품 등 8900여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브랜드 별 할인 폭은 고운세상·로열네이처 등이 50%, 로레알파리·메이블린 등은 40%, 닥터자르트·세타필 등 30%다.

남자를 위한 스킨케어 브랜드 'XTM 스타일 옴므'와 올리브영이 단독 론칭한 일본 아이메이크업 브랜드 '베르사이유 장미' 제품도 2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같은 기간 GS왓슨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GS왓슨은 한주일 동안 수려한·이자녹스·로레알 등 100여개 인기 브랜드의 5000여 개 품목을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특히 시즌오프 행사로 여름 제품을 최저가에 제공하고, 추석 선물용 화장품 세트와 향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아이파크백화점, 구매금액 10% 상품권 증정행사

아이파크백화점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아이파크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상품권 행사는 대개 구매금액의 5% 수준에서 진행된다"면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 결제·체크카드·신용카드사별 제한 없이 모든 결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는 카드사별로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어라운드 더 코너 '홍대점 오픈' LG패션의 라이프 스타일 & 패션 컬티 스토어 '어라운드 더 코너'가 지난 28일 홍대에 두 번째 스토어를 오픈했다. 홍대점은 낡은 주택을 개조해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미국 스트리트 브랜드 '리즌 클로징'과 'SSUR'을 비롯해 프랑스 스트라이프 티셔츠 브랜드 '오르시발' 등 5만~20만원대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사진은 어라운드 더 코너 홍대점 내부 모습.

<사진/이호영>

"자스 노래 듣고 단박에 반했어요"

또다른 음악여정 나선 밴드
더블유 앤 자스

일렉트로닉 팝 밴드 '더블유 앤 웨일'(배영준·한재원·김상훈)이 '더블유 앤 자스'로 팀 이름을 바꾸고 팬들에게 새음악을 선사하기로 했다. 이 팀은 MBC드라마 '케세라세라'의 주제가 '월광'과 광고 삽입곡 'R.P.G 샤인'등을 히트시켰던 밴드다. 여성 보컬 웨일이 나간 자리에는 새 멤버 자스(본명 장은아)가 들어왔다. 팀 결성 15년째를 맞는 더블유는 자스와 함께 미니앨범 '뉴 키드 언 타운'을 발표하고 새로운 음악 여정을 시작했다.

#3단 고음에 빼어난 표현력 감동

웨일이 솔로 가수로 독립한 이후 더블유는 변화를 위해 남성 보컬 영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100차례가 넘는 오디션을 봤지만 적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보컬은 많았지만 개성 있게 감성을 전달하는 인물은 없었다.

그 무렵 한재원과 김상훈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본 자스는 리더 배영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남자 보컬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만났는데 노래를 듣고 홀딱 반했어요. 오디션 곡으로 '만화가의 시련 같은 고양이'를 제시했는데 부드럽게 이야기하듯 부르는 모습이 좋았어요."(배영준)

세 남성 멤버는 "3단 고음의 폭발적인 가창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도 훌륭하지만 빼어난 표현력에 감동받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자스는 2006년 드라마 '서울 1945' OST로 데뷔해 러브홀릭스 객원 보컬로 활동하며 영화 '국가대표' OST에도 참여했다. 대학에서 판화를 전공한 그는 음악과 미술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미술과 음악 활동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엠넷 '보이스 코리아 시즌1' 출연 이후 진로를 굳혔다.

"목소리로만 심사를 한다는 형식이 끌렸어요. 당시 저의 행보가 애매했거든요. 앞으로 노래를 계속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겠다는 심정으로 '보이스 코리아'에 출연했죠. 결과적으로는 방송 출연이 인연이 돼 더블유 오빠들을 만나게 됐고, 힘든 상황에서 노래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도전 의지를 다지게 됐어요."(자스)

#팀 음악색깔 변화

"웨일이 생기발랄 잘 여동생 같았다면, 자스는 친구같고 어떨 땐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유쾌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늘 에너지가 넘쳐서 저희들의 성향까지 바꿔놓고 있어요.

> **이번 미니앨범은 차분+강렬**
> **사랑·삶 담담하게 그렸죠**

할 일 없이 작업실에만 박혀 지내왔는데, 자스의 권유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놀이동산도 다녀왔어요."(한재원)

바뀐 팀 분위기는 음악 색깔의 변화로 이어졌다. 웨일과 작업했던 음악들이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모험과 같았다면, 자스와 함께 발표한 이번 앨범은 보다 깊은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강렬하면서도 차분하게 정리된 비트와 더욱 풍부하고 성숙해진 보컬이 앨범 전반에 두드러진다.

타이틀곡 '그린'은 사랑에 대한 망설임과 삶의 희망을 담담한 어투로 그린 노래다. 그동안 영화·문학작품·애니메이션의 이미지를 노래에 인용하는 시도를 자주 해왔던 이들은 이 곡에서 루시드 폴의 '고등어' 가사와 김중혁 작가의 소설 '악기들의 도서관'을 인용해 눈길을 끈다.

"화려한 색채를 넣지 않으면서도 자스의 목소리를 최대한 아름답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순수하게 보컬리스트의 힘으로 곡을 밀고 나가면서 편안하고 따사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죠."(김상훈)

#173cm 그녀 만능엔터테이너

173cm의 키와 서구적 외모를 지닌 자스는 미술과 음악뿐 아니라 뮤지컬에도 진출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뮤지컬 '광화문연가'에 리사와 함께 여주인공으로 더블 캐스팅됐고 일본 투어 공연도 다녀왔다. 이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는 마리아 역으로 출연했다.

"자스가 출연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우리 옆에 있던 동생이 아닌 다른 연예인이 무대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숨은 재능에 놀랐고, 우리가 이런 대단한 친구와 함께 활동한다는 데 뿌듯했죠. 재원이가 프로듀서로 여러 음악 활동을 하듯이 자스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블유 앤 자스를 더욱 알렸으면 합니다."(배영준)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김혜랑

V-스캐너
COMBO1
퍼펙트싱어
VS
오늘 밤 10시 tvN 첫방송
매주 | 금 | 밤 10시 방송
'V-스캐너' 란?
오직 tvN <퍼펙트싱어VS>에서만 볼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노래의 음정, 박자는 물론, 당김음과 바이브레이션 등 싱어가 가진 스킬까지 정밀하게 체크해 눈 앞에서 게임을 하듯 박진감 넘치는 화면으로 보여준다. 이제 V-스캐너가 당신의 노래를 평가한다!

대단해요! 씨엔블루·카라

오리콘 일간차트 나란히 2·3위
신예 B1A4 싱글부문 2위 올라

한류 가수들이 일본 음악시장에서 파상 공세로 K-팝의 건재를 입증했다.

28일 새 앨범을 출시한 씨엔블루와 카라, 새 싱글을 발표한 B1A4가 일제히 오리콘 차트 정상권에 이름을 올렸다.

씨엔블루는 일본 정규 2집 '왓 턴즈 유 온?'으로 하루 만에 2만6921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2위를 차지했다. 선두인 NHK 인기 드라마 '아마짱' 사운드트랙과는 불과 467장 차이로 주간차트에서 정상을 노려볼 만 하다.

씨엔블루는 정규 1집으로 오리콘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네 번째 싱글부터 지난달 31일 발표한 여섯 번째 싱글까지 세 장 연속 오리콘 2위를 차지하며 일본에서 톱 밴드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이번 앨범의 11개 수록곡을 모두 멤버들이 직접 썼다는 점에서 대중성과 함께 음악성도 동시에 인정받았다. 정용화가 타이틀곡 '원 모어 타임'을 비롯해 7곡을 썼고, 이종현이 4곡을 썼다.

한류 걸그룹 선두주자인 카라는 일본 정규 4집 '판타스틱 걸즈'로 2만61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씨엔블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국내 정규 4집 출시 준비에 전념하느라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이번 음반은 '걸즈 토크', '슈퍼걸', '걸즈 포에버' 등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표한 소녀 시리즈 정규 앨범의 완결판이다.

신예 남성 아이돌 그룹 B1A4는 K-팝의 차세대 주자로 우뚝 섰다. 이들은 1년 만에 내놓은 일본 세 번째 싱글 '이게 무슨 일이야'로 싱글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정상은 지지한 일본 인기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와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하루 동안 2만5705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K-팝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씨엔블루

카라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6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스피카 'X언니' 1위 그 뒤 이효리 있었다

걸그룹 스피카가 'X언니' 이효리 효과를 톡톡히 봤다.

스피카는 9개월 만에 발표한 신곡 '투나잇'으로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28일 발표한 이 곡은 29일 엠넷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데뷔 1년 7개월 만에 음악 관련 차트에서 처음 정상을 맛봤다.

또 벅스 2위, 소리바다 3위, 올레뮤직 1위, 네이버뮤직 4위, 다음뮤직 5위 등 다른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성적을 거둔 데에는 이효리의 역할이 컸다. 이효리는 선곡부터 재킷 디자인,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듀싱을 도맡아 앨범 제작을 지휘했다. 작곡에는 이효리 5집 타이틀곡 '배드 걸즈'의 작곡팀 일부가 참여했고, 작사는 이효리와 스피카 멤버 보하기 함께했다.

앨범 준비 과정은 방송으로 소개돼 화제를 모았고, 이효리는 "뒤를 봐주는 언니라는 뜻의 'X언니'가 되겠다"며 스피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스피카는 이효리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존재감 없는 걸그룹으로 방송에 소개됐지만, 이효리의 참여로 단숨에 인지도를 높였다.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아찔한 매력을 뽐내는 등 이효리의 영향을 받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스피카는 30일 KBS2 '뮤직뱅크'에서 컴백무대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유순호기자

버벌진트 영화 '잡스' 홍보지원

힙합 대세남 버벌진트가 영화 '잡스'의 홍보 지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버벌진트는 극중 영상들을 이용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노래 '우리 존재 화이팅!'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혁신적인 음악으로 국내 힙합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그는 조용필의 신곡 '헬로'에 랩 피처링을 하는 등 새로운 도전으로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노래는 청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뮤직비디오는 버벌진트 특유의 비트 있는 랩 멜로디 사이로 흐르는 젊은 시절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담아 잡스의 뜨거웠던 청춘을 자세히 들여다 보게 만든다. /유순호기자

"크레용팝 싸이 이을 스타"

美 '굿모닝 아메리카' 소개

크레용팝이 미국 ABC의 대표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28일 방송에서 크레용팝과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을 차세대 K-팝 루키로 소개했다. 또 이들의 히트곡인 '빠빠빠'의 안무 '직렬 5기통 춤'을 언급하며 기존 걸그룹과 차별화된 콘셉트로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에 많은 패러디 영상이 등장하고 학생, 경찰, 군인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패러디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크레용팝 멤버 웨이는 많은 걸그룹이 내세우는 섹시 콘셉트가 아닌 코믹한 이미지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사회에서 일로 지쳐 있는 현대인에게 같이 뛰며 즐겁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크레용팝은 빌보드 K-팝 칼럼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매체로부터 "싸이의 뒤를 이을 스타"로 주목받았다. /유순호기자 sun@

8월 5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순위	가수	곡	변동
1위	EXO	으르렁	
2	크레용팝	빠빠빠	—
3	승리	할 말 있어요	NEW
4	범키	갖고 놀래	NEW
5	f(x)	첫 사랑니	▼
6	2NE1	Do You Love Me	▼
7	샤이니	아는 사람 얘기	▼
8	비스트	Shadow	▼
9	제국의 아이들	바람의 유령	▲
10	브라운아이드걸스	Kill Bill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생방송 MnetMcountdown MnetMAMA

PHOTO 잠시만요, 각선미 잡고 행사 가실게요

29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100일 성과 보고회'에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걸그룹 레인보우 신보라가 감사패를 받기 위해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며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잠시만요, 보라 언니 계단 오르시고 행사 시작할게요! /조성준기자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영화	예매율
1	엘리시움	16.50%
2	감시	13.87%
3	숨바꼭질	13.72%
4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	12.78%
5	설국열차	9.83%

육아·살림하는 아빠에 꽂혔다

방송가 관련 프로그램 봇물…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안방팬 유혹

아빠들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상파와 종편 할 것 없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MBC '일밤 - 아빠 어디 가'가 인기리에 방영중인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9~21일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KBS2를 통해 선보인다.

정규 편성전 파일럿 형식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아내없이 이틀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연예인아빠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가수 이현우와 연기자 장현성,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방송인 이휘재가 출연한다.

종편 채널 MBN도 이달 하순부터 비슷한 내용의 '아내가 사라졌다'를 방송중이다. 개그맨 최양락과 연기자 김용수, 감정평가사 아삼륜, 가수 조관우가 아내가 없는 동안 자녀들과 지내고 가사에 도전하는 과정을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밖에 SBS는 '스타부부쇼 자기야'의 포맷을 일부 바꿔 '자기야 백년손님'으로 사위들의 처갓집 적응기를 담아내고 있다.

잠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남성 가장들이 처월드 식구들과 부대끼며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그동안 무심했던 가족 관계를 되돌아 본다는 제작 취지는 앞서의 프로그램들과 일맥상통하다.

이처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다 보니 표절 시비도 방송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베끼기 여부에 대해 '슈퍼맨'의 강봉규 PD는 "일상에서 가족내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를 조명한다. '아빠 어디 가'보다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더 있다"고 답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야외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보다 제작비는 조금 들지만 이웃집을 엿보는 것처럼 소소한 재미는 더 뽑아낼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남성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요즘 시대 분위기의 변화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star bag

日 팬미팅 열고 노래선물

가수 성시경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이날 열린 팬미팅에서 성시경은 제수노이 '거리에서' 등 좋을텐데' '내게 오는 길' 등 자신의 히트곡들과 다마키 고지 등 현지 가수들의 노래를 불러 팬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는 "TV 출연으로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가 적었는데 정말 기쁘다. 앨범과 콘서트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엑소와 화장품 브랜드 모델

소녀시대 태연(사진)과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EXO)가 화장품 브랜드 더 네이처 리퍼블릭의 모델로 나선다.

네이처 리퍼블릭 측은 29일 "이들과 2년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시아를 위주로 해외 12개국에 진출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태연과 엑소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 낳아

결혼한 미녀 연기자 한채영이 6년만에 득남했다.

29일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채영은 전날 오후 1시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다. 소속사는 "당분간 육아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7년 투자회사 직원과 결혼한 그는 올 3월 KBS2 광고천재 이태백'에 출연하던 중 임신 소식을 알렸다.

“한국영화 게 섰거라” 외화 대반격

'엘리시움' 예매율 1위 질주 등 줄줄이 상위권 다음주까지 강세 이어질듯… '숨바꼭질' 등3

한국영화의 월 관객 2000만명 시대를 처음 알린 8월의 마지막 주 외화 삼총사의 대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오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이날 개봉된 SF 액션물 '엘리시움'이 27.2%로 1위를 달렸고 상영 2주째로 접어든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이 21.0%로 뒤를 이었다

또 '엘리시움'과 같은 날 공개된 애시턴 커처 주연의 '잡스'는 10.4%로 4위를 차지해 3위(13.8%) '숨바꼭질'을 세 편의 외화가 둘러싼 상황이 됐다

예매 실적대로라면 '엘리시움'이 이번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외화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다음 주말까지 외화들의 반짝 경기 회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시즌을 겨냥한 흥행작들 가운데 가장 빨리 출발하는 설경구·문소리 주연의 코믹 액션물 '스파이'와 제한상영가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다음달 5일 개봉되지만 '설국열차'·'더 테러 라이브'·'숨바꼭질' 갑갑가 합작한 8월의 한국영화 흥행 돌풍을 이어받기는 다소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극장 관계자는 "송강호·이정재 주연의 '관상'이 다음달 12일 개봉되기 전까지 짧게나마 외화들의 강세가 점쳐진다"고 분석했다

▶ 숨바꼭질 이번주 500만 돌파 전망… 설국열차 900만

28일까지 전국에서 444만2160명을 동원한 '숨바꼭질'은 이번 주말 500만 고지에 안착할 전망이다. 872만9913명을 불러모은 '설국열차'도 흥행 속도가 이주 느려지긴 했지만 900만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칸 진출작 ‘쇼를 사랑한 남자’ 개봉

올해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 진출작 '쇼를 사랑한 남자'(원제 비하인드 더 캔들라브라)가 10월 9일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명장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60~70년대 라스베이거스를 주름잡았던 피아노 연주자 리버라치와 동성 연인 스콧의 사랑과 전쟁 실화를 그렸다. 리버라치는 화려한 무대와 현란한 쇼맨십을 앞세워 당대 최고의 엔터테이너로 불렸던 인물이다

인후암 투병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마이클 더글러스가 리버라치로 변신해 놀라운 연기를 선보인다. 마초적 이미지가 강했던 이전과 달리 성형수술을 너무 자주 받아 눈뜬 채 자는 모습부터 코믹스러운 발성까지 여성스러운 게이 캐릭터로 건재를 과시한다

단정하고 우직한 남자 전문인 맷 데이먼의 호연도 더글러스 못지 않다. 극중 리버라치의 연인이자 양아들이며 친구로 사랑과 우정의 오묘한 경계를 이어 가는다

스콧이 에이즈로 죽은 리버라치가 마지막 무대에서 하늘을 날아 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마지막 장면은 가슴 찡한 여운마저 선사한다

/조성준기자

롯데시네마 배급사에 수익 55% 지급

롯데시네마가 한국영화에 유리한 쪽으로 다음달부터 부율을 조정한다

롯데시네마는 29일 "9월 1일부터 서울 지역 자사 직영 상영관의 한국영화 부율(배급사와 극장의 수익 배분 비율)을 기존의 50 대 50에서 55 대 45로 바꾼다"며 "한국영화의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한국영화 부율은 배급사 50 대 극장 50으로, 앞서 6월 CGV가 55 대 45로 부율을 변경했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ould you help me lift this heavy box? 부탁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른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Hello My name is Brad Johnson 쿠퍼 씨에게 제가 여기 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B Of course Could you please wait here for a moment?
A Sure thank you Oh there's Mr Cooper
C Hi, Brad By the way, Susan 이 서류들을 회의에 가져가요, 그래 줄래요?
B Yes sir

정답 Would you please tell Mr Cooper that I'm here? / take these documents to the meeting, will you pleas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Would you mind feeding the cat for me?
저 대신 고양이에게 먹이 주시면 안 될까요?

Would you mind –ing?는 Do you mind –ing?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대개 Do you보다 Would you로 물었을 때 더 예의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하는 것을 꺼려하나요?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호적으로 아니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려면 No not at all 등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또는 Sure no problem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I'm afraid I do 라고 하거나 I'm sorry but I do mind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a/an & the

▶ 부정관사 a/an과 정관사 the

1 부정관사 a/an은 대화중 처 상대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명사 앞에 쓴다.
I have a pet 저는 애완동물이 하나 있어요.

2 정관사 the는 상대방도 나도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할 때 쓰는 말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명사 앞에 쓸 수 있다.
How was the traffic this morning?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어땠어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을 의미하므로 the)

▶ 핵심문법 확인학습_우리말을 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1 아침에 고양이 한 마리를 봤어요.
I saw ______ cat in the morning
2 TV 좀 켜줄래? Can you turn on ______ TV?
3 나는 언젠가 수입차를 살 거야
I will buy ______ imported car someday

정답 1 a / 2 the / 3 an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ccording to the *Harton Fashion Chronicle* many designers ______ green and brown fabrics for their autumn collections this year

(A) to use (B) are using
(C) had been used (D) are used

02 Ms Cho is not only a good public speaker ______ also a talented writer

(A) both (B) if
(C) nor (D) but

01. 하튼 패션 크로니클에 따르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올 가을 컬렉션에 녹색과 갈색의 천을 사용하고 있다.
해설 문장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빈칸 뒤에 목적어 green and brown fabrics가 있으므로 능동태인 (B) are using을 쓴다.
어휘 fabric 옷감, 직물
정답 (B) are using

02 조 씨는 훌륭한 연설가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해설 not only와 짝을 이루어 'A뿐만 아니라 B도'를 의미하는 상관접속사인 but also를 쓴다.
어휘 public speaker 연설가 talented 재능 있는
정답 (D) but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3 Respond to questions

4, 5번 질문 유형 파악하기 (15초 답변)

빈도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When do you usually eat out with your family? 당신은 가족들이랑 주로 언제 외식을 합니까?
A [대체 내용 언급]
It's usually when a family member has a birthday 주로 가족의 생일날 외식을 합니다.
[이유 언급]
Birthdays are special days so we go out to celebrate at a fancy restaurant It is very nice to have a family gathering in a different atmosphere once in a while
[illegible]

When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 답변 다음 적절한 이유들을 덧붙이면서 반드시 15초라는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 완두 줄지 대답하는 간단한 내용이면 된다.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은 usually와 같은 표현과 함께 현재시제로 답한다.

SK, 삼성 꺾고 4연승

조동화 3루타 29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7회말 SK공격 1사 1루 상황에서 SK 조동화가 3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은 NC 완파하고 단독 3위

SK 와이번스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선두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4연승을 질주했다.

SK는 29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홈 경기에서 5-2로 이겼다. 최근 4연승의 신바람을 낸 6위 SK는 올 시즌 여섯 번째로 50승(2무 48패) 고지에 올라서며 4위 넥센 히어로즈와 승차를 3.5경기로 좁혔다.

SK 좌완 에이스 김광현은 7이닝 동안 3안타 1실점으로 시즌 9승(7패)째를 챙겼다. 삼성의 최형우는 시즌 24호 홈런으로 넥센 홈런 선두인 넥센 박병호를 다시 하나 차로 추격했지만 빛이 바랬다.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홈팀 롯데 자이언츠가 홍성민의 프로 데뷔 첫 선발승에 힘입어 한화 이글스를 1-0으로 제압했다. 5위 롯데와 4위 넥센의 승차는 2.5경기로 좁혀졌다.

두산 베어스는 잠실 마산구장에서 이종욱의 3타점짜리 결승타로 NC 다이노스를 6-0으로 완파하고 단독 3위에 올랐다.

/이국현기자 kmlee@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29일

■ 문학

삼성	001	000	010	2
SK	000	000	50X	5

[illegible]

■ 사직

한화	000	000	000	0
롯데	000	000	10X	1

[illegible]

■ 마산

두산	040	000	101	6
NC	000	000	000	0

[illegible]

한 경기 만에 최고→최악

박지성 밀란전 평점 4.5

박지성(32)의 에인트호번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에인트호번은 2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대회 리그 플레이오프 원정 2차전에서 홈팀 AC밀란에 0-3으로 완패했다.

AC밀란은 1차전 1-1 무승부를 포함해 합계 4-1로 32강이 겨루는 본선 조별리그에 진출했다.

1차전 동점골의 주인공이었던 박지성은 이날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까지 고군분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반 43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으나 수비수에게 막히는 등 오른쪽 측면과 중앙 수비를 오가며 득점 기회를 노렸지만 무위에 그친 뒤 플로리안 요제프준과 교체됐다.

1차전의 맹활약에 칭찬을 쏟아냈던 현지 언론은 경기후 태도를 바꿨다. 이탈리아 축구 전문 사이트 데이터 스포르트는 양팀 선수들 가운데 가장 낮은 평점 4.5점을 주는 데 그쳤고 골닷컴 영국판 역시 최악의 선수로 지목하며 별 5개 만점에 1.5개를 매겼다.

한편 박지성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출전으로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준기자

박지성(왼쪽)이 AC밀란 마리오 발로텔리(오른쪽)의 패스를 가로채러 달려들고 있다. /AP 뉴시스

추신수 1안타 1볼넷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통산 100 홈런-100 도루를 달성한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이틀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팀은 10-0 승리를 거두고 3연패에서 벗어났다.

전날 스즈키 이치로(뉴욕 양키스)에 이어 아시아 선수론 두 번째로 기록 달성에 성공한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뽑아낸 뒤 제이 브루스의 중전 안타 때 홈을 밟아 선취 득점의 주인공이 됐다. /조성준기자

연재, 아차차!

'실수연발' 후프-볼 7위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19·연세대)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손연재는 2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종목별 후프 결선에 17.158점으로 8명 가운데 7위에 그쳤다. 볼 결선에서도 16.658점으로 역시 7위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종목별 결선에 나선 손연재는 후프를 놓치고 볼을 다리로 누르는 동작에서 볼이 굴러가는 등의 실수로 큰 감점을 당했다.

이달 중순 열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에선 실수를 반복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주영 대표팀 코치는 "(손)연재가 긴장하면 수구를 던졌다가 받는 동작에서 실수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틈에서 그런 실수가 나왔다"며 "동유럽 선수들은 여러 나라를 돌며 연기하는데 익숙하지만 연재는 심리·신체적으로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개인 종합 예선 중간 순위에선 후프와 볼에서 17.550점과 17.400점을 각각 받아 합계 34.950점으로 6위에 올랐다.

/조성준기자 whan@

손연재가 종목별 후프 결선에서 마[illegible] 선보이고 있다 /로이터 뉴시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1-서울강남-0163]

1566-7979

#1

#2

#3

#4

#5

#6